

GLOBAL TREND

세계지방자치동향

일본

일본에서의 지방 이주·정주 시책의 모범사례

미국

ChatGPT, AI 그리고 지방정부

일본

SDGs달성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정책사례

독일

매력적인 보행 친화거리 조성을 위한 도시 테라스 프로젝트

한국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방향



SDGs달성을 위한 일본 지자체의 정책사례

- 요코하마시(横浜市),기타큐슈시(北九州市)를 중심으로

일본지자체의 환경정책의 변천

- ▶ 1970년대는 공해방지를 위한 지자체와 기업간의 공해방지협정, 1980년대는 자연보호를 위한 정책에서 쾌적한 환경창조를 위한 정책으로 지자체의 환경관련 정책이 확대 도입됨
- ▶ 1992년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 (UNCED)"에서 채택된 "아젠다 21"의 영향으로 일본의 각 지자체도 21세기를 향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구체적 행동계획으로서 "로컬아젠다21"를 작성함
- ▶ 일본 지자체의 "로컬아젠다21"은 환경성 주도로 작성되어 환경분야에 특화된 내용이 중심임
- ▶ 현재는 각 지자체가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고 환경기본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로컬아젠다21"은 사용되지 않고 있음
- ▶ **환경지자체회의(環境自治体会議)**
 - 환경에 관심이 있는 지자체가 모여 만든 네트워크 조직으로, 1992년 북해도 이케다초(北海道池田町), 이바라키현 우리즈라초(茨城県瓜連町), 오키나와현 요미탄촌(沖縄県読谷村)의 지자체장이 발기인이 되어 발족됨
 - 2003년 74개 지자체가 참가하는 조직으로 확대되었으나 2020년에 해체된 상태임
 - 환경지자체회의의 사무국은 환경정책연구소로 시민운동전국센터안에 설치되어 있어 2020년에 설립된 지속가능한 지역창조 네트워크의 사무국으로서 현재까지도 활동하고 있음
 - 환경지자체회는 폐기물관련 정책에서부터 지구온난화 대책에 이르기까지 9개 분야를 선정하여 공통적인 목표를 설정했으며, 교류를 통해 지자체의 독자적인 정책 및 시책의 도입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중앙 정부에 의한 지자체의 성공사례 선정 및 재정적인 지원의 확대로 인해 환경지자체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참가 지자체의 감소로 인해 자연스럽게 해체됨

일본지자체의 SDGs달성을 위한 정책수립 배경

- ▶ **일본정부의 SDGs 추진을 위한 정책**
 - 정부는 「SDGs추진본부(2015)」, 「SDGs실시지침(2016)」, 「SDGs액션플랜2018(2018)」 등 SDGs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확대판SDGs액션플랜2018」, 「환경모델도시」, 「환경미래도시」, 「SDGs미래도시」를 선정함
- ▶ **환경모델도시**
 -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선진적인 시책을 도입한 도시를 선정했으며, 2008년에 13개 도시, 2012년 7개 도시, 2013년에 3개 도시를 선정함
- ▶ **환경미래도시**
 - 환경문제 및 초고령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인간 중심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도시를 선정했으며, 2011년에 11개 도시를 선정함
- ▶ **SDGs미래도시**
 -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지표 6개를 설정하여 도시를 선정함 (※ ①미래비전수립, ②체제수립, ③현재 실시되고 있는 각종 계획과 연결, ④수평적 및 수직적인 연계, ⑤정보제공에 의한 학습과 정보공유, ⑥로컬 지표 설정)
 - 2018년 29개, 2019년 31개, 2020년 33개, 2021년 31개, 2022년 30개 도시를 각각 선정함

요코하마시(横浜市)의 SDGs달성을 위한 시책

- ▶ 요코하마시는 환경모델도시, 환경미래도시에도 선정되었고 2018년에는 SDGs미래도시, 내각부로부터 지자체의 SDGs모델사업으로도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음
- ▶ 요코하마시는 1964년 일본 최초로 기업(화력발전소)과 공해방지협정을 체결한 도시로 역사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음
- ▶ 환경을 중심으로 경제 및 문화예술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설할 수 있는 도시를 실현한다는 비전을 제시함
- ▶ **SDGs미래도시로 선정된 프로젝트**
 - 장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환경, 경제, 사회의 각 분야별 시책 및 조직을 횡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과제를 통합해 동시 해결이 가능하도록 「SDGs디자인센터」를 창설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함
 - SDGs디자인센터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음

▶ 요코하마시 SDGs인증제도(Y-SDGs) 도입

- 기업뿐만 아니라 NPO, NGO 등 시민단체를 포함한 각 단체의 활동이 지속가능한 경영 및 활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함
- 2018년에 「2050년 Zero Carbon Yokohama」를 선언함

기타큐슈시(北九州市)의 SDGs달성을 위한 시책

- ▶ 기타큐슈시도 환경모델도시, 환경미래도시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에는 SDGs미래도시로 선정, 내각부로부터는 지자체의 SDGs모델사업으로 선정되어 예산지원을 받았음
- ▶ 기타큐슈시는 환경 특히 폐기물, 에너지, 상하수도 분야에 있어서 평가가 높음(기타큐슈 에코타운)
- ▶ 또한 환경분야의 국제협력부문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캄보디아 프놈펜에 대한 안전한 물공급을 위한 기술협력은 프놈펜의 기적이라고 불릴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 아시아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2018년에 OECD로부터 SDGs 추진을 위한 모델도시로 선정됨
- ▶ 진정한 풍요로움을 느끼고 세계에 공헌하며 신뢰받는 그린성장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함
- ▶ **SDGs미래도시로 선정된 프로젝트**
 - 지역에너지 차세대 모델사업의 경제면에서는 지속가능한 산업의 진흥, 사회면에서는 고령자 고용 및 시민 사회 활동 지원, 환경면에서는 이산화탄소배출량 삭감을 통한 기후변화대책 및 자원의 효율성 향상 등을 포함하고 있어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시책을 도입하고 있음
- ▶ **SDGs달성을 위한 추진 체제**
 - 기타큐슈시 SDGs협의회, 기타큐슈시 SDGs클럽, 기타큐슈시 SDGs미래도시 추진본부

현황 및 시사점

- ▶ 중앙정부 주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국적으로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주도의 정책 및 시책의 도입이 필요함
- ▶ 지자체 SDGs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 지원뿐만 아니라 지자체 간의 교류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 고령화사회, 인구 감소 등 지자체가 직면하고 있는 경제·사회부문의 과제를 환경을 중심으로 도입하는 시책 및 정책을 통하여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의 도입은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함

- ▶ SDGs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체제에 있어서 지역기업이나 주민들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함
- ▶ 요코하마시와 같이 오염집적도가 높은 공업단지가 있는 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의 환경규제보다 더 높은 규제수준을 도입함과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선진적인 환경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시민과의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음
- ▶ 기타큐슈시는 지방의 작은 도시이지만 적극적인 환경정책의 도입으로 환경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발전, 환경분야의 국제협력에 성공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음

참고자료

- 1) 内閣府.(2023). 「地方創生SDGs・環境未来都市構想」(chisou.go.jp). 2023년 3월14일 열람
- 2) 横浜市.(2023). 横浜市の温暖化対策/SDGs未来都市:持続可能な都市を目指して」(0022_20230228.pdf (yokohama.lg.jp)). 2023년 3월14일 열람
- 3) 北九州市.(2023). 「SDGs未来都市 - 北九州市」(kitakyushu.lg.jp). 2023년 3월14일 열람

나성인 통신원

nasungin@shudo-u.ac.jp

히로시마수도대학 인간환경학부 교수